

중동 리스크가 밥상까지... 식재료 가격 '고공행진'

계란·닭고기 값 등 전방위 폭등... 서민 '한숨' 유통업계, '초저가·가성비' 전략 할인전 총동원

계란과 닭고기 등 필수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불안한 국제 경제 여파 속 고유가·고환율 영향으로 식탁 물가가 전방위로 폭등하자, 유통업계는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전 등을 총동원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여파로 국

내 계란(특란) 한판(30구)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16일 기준 광주지역은 6803원, 전남지역은 7037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각 6789원, 6586원에 비해 1~6%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1100만 마리가 상이 살처분되며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밖에 닭고기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30% 이상 상승했고 한우 역시 전년 대비 20% 넘게 오르면서 치킨, 가공식품, 외식 가격 인상 압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동사태 여파로 인한 고유가 충격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며 식탁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유통업계는 '초저가', '가성비' 전략과 함께 다양한 할인전을 앞세우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최초로 '태국산 신선란'을 도입, 오는 19일부터 30구 한판 기준 5890원에 판매한다. 약 4만6000판을 준비했지만, 많은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2판으로 제한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자체 PB '심플러스(simplus)'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델리, 완구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고 있다.

산지 다변화와 선제적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할인 행사와 기획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는 축산물과 계란 중심 '가격안정 기획전'을 확대하고 카드사 연계 할인과 대용량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노르웨이산에 의존하던 고등어 수입선을 다변화해, 약 50% 저렴한 가격의 칠레산 태평양 참고등어를 추가 도입하고 오는 6월부터 전체 물량의 20~30%를 대체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주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가성비 자체 브랜드(PB)를 통한 초특가 행사를 이어간다.

특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자 고객 구매 빈도가 높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초가성비 상품을 확대해 실질적인 체감 할인 혜택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고물가 기초 속 증가하는 집값 수요를 반영해 스타 셰프와 협업한 가정간편식(HMR) 신상품을 선보이는 등 PB 상품 경쟁력도 한층 강화했다.

오는 29일까지 PB '오늘좋은', '요리하다' 위주로 대규모 할인 행사 'PB 페스타'를 운영한다. 1ℓ에 1880원인 '오늘좋은 데일리우유'는 물론, 10매당 33원 수준인

'3겹 300매 티슈(1000원) 등 초가성비 먹거리·생활용품을 선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재료와 포장재,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유통과 제조 단계에서 이를 흡수하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 전가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구매 빈도가 높은 생필품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초가성비 상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모두 갖춘 상품 출시와 할인 행사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유통업계 생존 전략은 '인공지능'... 새로운 커머스 확장

신세계, 리플렉션 업무협약 현대, 프리미엄 큐레이션 롯데, 맞춤형 상품 등 제안

유통업계가 인공지능(AI)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업계가 챗봇,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단순 알고리즘 기반 AI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운영관리·마케팅·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인 리플렉션 AI(Reflection AI)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품 소싱,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 리테일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MOU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공동 운영에 힘을 모으며 동시에 신세계 그룹의 기존 유통업과 AI가 시너지를 낼 전략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회사와 고객 모두 유통과 AI의 시너지를 잘 체감할 수 있는 '첨단 AI를 통한 리테일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합쳐 AI를 접목할 리테일 영역은 모두 6개다. 상품 소싱에서부터 발주, 가격 책정, 물류, 재고관리, 고객관리에 이



신세계그룹은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인 리플렉션 AI(Reflection AI)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품 소싱,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 리테일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르기까지 사실상 유통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실제 리테일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하면 고객이 '가장 원하는' 상품을 '제때' 찾아 공급하고 '최적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원산지로부터의 운송과 고객에게 배달하는 배송 등 물류와 재고 관리에서도 비효율은 줄어들게 된다. 즉 생산성 증대로 기업 가치는 올라가고 고객은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AI 리테일 혁신은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직접 다루고, 가장 많은 고객 접점을 가진 이마트가 선두에 섰다.

이마트 실무그룹은 조만간 한국을 찾

는 리플렉션 AI와 만나 실행 방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내 종합식품기업 가운데 최초로 롯데웰푸드도 오픈AI의 챗GPT 내 전용 앱을 출시하며 AI 커머스 시장 선전에 나섰다.

해당 서비스는 챗GPT 대화형 인터페이스 안에서 제품 탐색부터 추천·구매까지 이어지며 이용자가 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상품과 구매 경로를 함께 제시한다.

롯데마트는 현장 적용에 초점을 맞춘 실행 중심 전략을 펼치며 AI를 활용해 과일의 당도와 숙성도, 외관을 분석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불량률을 크게 낮추고 고객

불만도 감소시켰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현대백화점도 기존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식품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움'을 통합한 '더현대 하이' 운영을 개시했다.

각 분야의 특화 전문관을 손꼽을 수 조로 구현해 프리미엄 큐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또 특가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계절·공간·취향에 맞는 패션·리빙·식품·뷰티 상품을 묶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 구조를 도입했으며 각 카테고리별 전문관을 손꼽을 형태로 구성된 멀티 전문관 체계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제주항공, 장애인 고용 모델 '우뚱' '모두락' 9주년... 고용 확대 성과로 노동부 장관상

제주항공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두락'이 출범 9년을 맞이하면서 항공업계 대표 고용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 채용을 넘어 직무 개발과 근무환경 개선까지 결합한 지속가능 경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18일 서울지사에 항공업계 최초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두락'을 설립하고 임직원을 위한 카페와 네일아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모두락'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뜻하는 제주 방언 '모두락'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후 2018년 카페 2·3호점을 추가 개소하며 사업을 확대했다.

초기 19명으로 시작한 장애인 직원은 현재 46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33명(72%), 여성장애인은 31명(67%)으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용 안정성도 눈에 띈다. 신규 입사자와 고령 촉탁직을 제외한 29명이 정규직 경 개선까지 결합한 지속가능 경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18일 서울지사에 항공업계 최초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두락'을 설립하고 임직원을 위한 카페와 네일아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모두락'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뜻하는 제주 방언 '모두락'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후 2018년 카페 2·3호점을 추가 개소하며 사업을 확대했다.

초기 19명으로 시작한 장애인 직원은 현재 46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두락'이 출범 9년을 맞이하면서 항공업계 대표 고용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